

<자기소개>

○문과고, 일단 인생을 잘못 살아서 다 년도에 걸쳐서 수능을 봤었습니다. 현재 서울 상위권 대학은 아닌 대학에 재학중이고, 신입생 경험도 다수, 원서 영역 경험도 다수입니다. 스나 경험도 다수입니다. 20수능을 마지막 수능으로 일단 입시는 끝냈고, 현재는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나경험

-제대로된 스나 경험은 18,20수능이고, 17은 약간 스나, 19는 군 복무중이라서 대충 제한적인 지표로 스나로 썼습니다. 그래서 17수능은 스나 성공, 18,19수능은 결국 그 대학 내에선 가장 낮은 과는 결과적으로 찾아냈지만 성적이 부족하여 스나 찾기만 성공, 20수능은 스나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공부를 영 못해서, 스나만한 인생이었습니다.

- 다군은 스나 영역에서 제외하고, 8개 원서중 가나군중 매년 1개는 맞췄으니 적중률 50프로짜리입니다. 맞춘 거 4개중 2개는 등록해서 다니고 있거나 다녔구요. 승률은 25프로네요.

<전제>

○우선. 문과, 건동홍이상 라인을 다룹니다.

- 스나경험이 있던 대학은 ky부터 건동홍까지입니다.

- 문과를 다룹니다. 이과는 알지도 못하고 제가했던 방식이나 제가한 이해가 동질적으로 같을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힌트정도까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동홍 미만 라인은 경험이 더욱 부족하여 제가 쓴 경험이나 생각들이 통용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 미만 라인을 스나를 바란다면, 그냥 과감하게 지르시길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 다른 더 전업으로 하는분들 등이 보기에 틀린 내용도있고, 혹은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나를 했고 또 그것이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다는 팩트지만 그걸 옮겨 적는 과정에서 틀리게 전달 할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틀린 가정이나 분석으로 원서를 썼지만 운 좋게 연어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이 글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그저 돌아다니는 흔한 정보글에 경험담에 불과합니다. 이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것도 본인의 자유고, 또 이 글을 불신하거나 혹은 이 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자 책임이겠죠.

○어느정도 정시 원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제가 일일이 모든걸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누백이 뭐고 평백이 뭐고.. 빵이뭔지 폭이뭔지는 다른 여러 글들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고 보고, 어느정돈 선행이 되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제가 답글을 달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봐야한다는 댓글은, 제가 답글을 달아봐도 어차피 그 질문은 스스로 대답할 줄 알아야 제 글을 어느정돈 도움되게 이해할 수 있기에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댓글이라 판단하여 우선은 답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글을 쓰는 이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굳이 글을 쓰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밝혀봅니다. 제 경험은 21수능까지만 통용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년부턴 입시가 매우 바뀌니 사실 버려질 경험들이죠. 버리기엔 조금 아깝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지금 쓰는 이유도 막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작성한진 3~4일 됐는데... 2020년엔 올려야 할 거 같아서 급하게 올립니다.

○되도록이면 ‘억울한’ 친구들,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갔으면 합니다.

- 이 글은 스나를 위해 씁니다. 내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잘 점수를 못받아서, 혹은 가진 재능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대에 걸맞지 않은 억울한 수험생들을 위해 씁니다. 즉 이 말은 안정을 위한, 적정을 위한, 폭을 피하기 위한 정시전략이 아닙니다.(하지만 본질적으로 빵을 노린다면 폭도 기본적으로 예측은 해낼줄 알아야합니다) 또 팽팽 놀고 성적대도 상당히 권역밖에 있는 학생들이 아 그래도 대학은 잘가고 싶은데?해서 0칸스나를 노리는 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투자하고 또 포기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결과가 그에 못따라가서 수능에서 미끌어지고 수능이 내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씁니다. 수능이 개인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원서로 만회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 글이 얼마나 문힐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1명은 읽지 않겠어요? 1명을 위해서라도 한 번 씁니다.

<모든 지원군은 쓰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스나 정의 이전에 이것부터 이해해야합니다.모든 과는 지원요건만 충족하면(수능을 최소한 응시했다든지, 여대라면 여자가 지원했다든지) 붙을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당연한 명제지만, 이게 스나가 성공하는 이유자 스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만약에 당해연도에 수능 문과 만점자 100명이 나온 상황이라 생각해봅시다.

Q1.만점자 A는 S대 경영을 지원한다면, 반드시 붙는가?

- 정답은 붙을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입니다.
- 우선, 반드시 붙을라면 추가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S대 경영의 TO가 100명이상이어야한다,
- 2)이과의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붙어야, 만점자 A는 반드시 S대 경영에 합격합니다. 만약에 1)이 없다면, 만점자중 누군가는 불합격자가 생깁니다. 이 경우, 사탐 백분위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번 수능처럼 세지가 섞여있는 만점자라면, 합격확률이 낮아지겠죠.

-추가적인 사례로, 대표적인 물수능인 15수능에서 만점자가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과사례지만, 만점자도 100%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합격확률이 100%로 간주해도 좋을 대표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만점자중엔 수시 합격자도 있을 것이다.
- 2)만점자 중엔 제2외국어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3)K대 한의대나 사관학교, 경찰대등 여러 추합요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4)만점자 중엔 꼭 경영대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TO가 10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혹은 교차지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만점자는 사실상 다 붙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만보고 면접이다 생각해보고 답변을 스스로 하면서 읽으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Q2.원점수 0점자 Z는 수능 만점자 100명인 상황에서 S대 경영을 지원한다면, 반드시 떨어지는가?

-관악마운틴 노루점핑이 생각나신다면, 맞게생각하시겁니다.

-정답은, 붙을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의 반드시 떨어질 것 같다고 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Z는 꼴지이므로 만점자부터 S대 적정이랑, 심지어 소위 스나한다는 KY지원자까지가 있으니 Z는 붙지 못할 것이다.

어라? 생각해보니 이유가 한 개밖에 없네요. 네 근데 진짜 한 개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Z가 0점이고, 그 사람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유입니다.

- 일단, 반드시 떨어질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원 요건(수능 응시여부, 혹은 특정 과목을 미응시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딱 하나입니다. 정시 원서는 무조건 쓰면 붙을 확률 0%가깝더라도 무조건 가집니다. 다시말해, 정시원서의 합격확률은 0보다 반드시 큼니다.(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험생 학부모가 S대 경영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불합격이겠죠. 당해연도 수능을 안치셨으니 점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Z는 시험이라도 쳤으니 최소한의 표준점수를 가져갑니다.

- 그렇다면, 반드시 떨어질 전제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붙을까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생각해볼만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만약 S대 경영 TO가 50명이고, 만점자 100명이 모두가 쫓아서 전원이 인문으로 하향하고, 그 외 지원자가 아무도 없고 Z혼자서만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겁니다. 이걸 어떤가요?

2)똑같이TO가 50명인데, 만점자가 100명중 25명은 사탐 백분위가 합쳐서 100이 만점이라 지원하고, 나머지 24명은 백분위가 약간 위태하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51명은 S대의 타 학과나 다른 대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자리를 Z혼자서만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

이것은 1)보다 덜 극단적인 사례일 겁니다. 하지만 1자리를 KY지원자나 혹은 S대 인소농 지원자가 상향을 해서 먹을 확률이 Z가 먹을 확률보다 큼니다. 하지만, 그게 100% Z가 남은 1자리를 못먹는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빵꾸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고전적으론 '관악마운틴 점핑노루'사건이 있고, 최근의 대표적인게 바로 17연심리 사건일 것입니다. KY성적대에게 0점 지원자나 연심리 빵꾸합격자나 사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지만 결국에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스스로 낼 수 있을 겁니다.

Q3.수능 만점자 100명이 있을때 전국 최하위 대학의 최하위 학과에 지원한다면 반드시 떨어지는가?

그래서 일단 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입니다.

1. 모든 과는 지원조건만 충족하면(수능을 최소한 응시했다든지, 여대라면 여자가 지원했다든지) 붙을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2. 정시 원서는 무조건 쓰면 붙을 확률이 0%가깝더라도 붙을 확률을 무조건 가진다. 다시말해, 정시원서의 합격확률은 0보다 반드시 크다.
 - 뒤집어 얘기하면 불합격할 확률은 100%의 값을 가지지 않는다.
3. 정시원서의 합격확률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소위 빵꾸가 일어날 수 있다.

스나를 정의하는데 구구절절 말이 길었죠? 하지만 위를 전제로 해야, 스나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나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1) 모든 과는 지원하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며, 빵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 2) 따라서 빵꾸라 추정되는 곳을 찾아내고
- 3) 여러 빵꾸라 생각하는 곳중 적절히 지원하는 것

결국 스나란, 1)이 됨을 전제로하여 2)와 3)을 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빵꾸로 추정되는 곳을 잘 찾아내야하고, 빵꾸라 생각하는 곳 중에서 적절히 지원해야하는 것이죠.

빵꾸를 잘못찾으면 지원해도 점수가 당연히 모자르니 안될 것이구요. 빵꾸 찾는 것부터 대부분 시도하지만, 성공률이 많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KY만 봐더라도, 빵꾸라 할 수 있는 학과들은 매년 1~2개밖에 안나옵니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빵꾸를 찾아낼 확률은 30개중 1개~2개니 5프로가 채 안됩니다. 그나마 빵꾸도 대부분 서성한 점수대로 가구요. 핵빵은 해봐야 2년에 1번씩(겨우 최근에)이니 더더욱 안납니다.

또 아무리 빵꾸를 잘 찾아낸다하더라도 점수가 모자르면(엄밀히 말하자면 지원자 내 등수가 모자르면) 떨어질 겁니다.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것이죠. 제 사례로는 우선 18수능이랑 19수능때 결국 찾아내긴 했지만 점수가 모자라서 못간 것이니 적절히 지원하진 못한 셈입니다.

또 하나의 저의 사례로는 20수능때는 막판에 현재 학과와 다른 학과를 고민했는데, 끝내 현재 학과를 지원했고 현재 학과 빵이나고 다른 학과는 입결 탑을 찍었습니다. 이걸 적절히 지원한 셈이 된 거죠. 빵꾸는 지원 직전까지 바뀝니다.(이 경우 경쟁률에 주로 좌우)

2)와 3)이 동시에 맞물려야 스나가 성공하는거니, 쉽지가 않습니다. 빵꾸를 찾아내든, 찾아낸 빵꾸를 합격하는 것 모두 물론 운이 작용합니다. 빵꾸를 합격하는 건 더더욱 운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0점자 Z라하니까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요? Y대 적정 지원자가 S대를 지원한다 합시다. 치밀하게 만점자를 O르비 모의지원이든 진학4 표본을 분석해보니 만점자가 100명중 25명은 사담 백분위 만점이고, 24명은 백분위가 위태하지만 지원할 것이라 추정했다 치고,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해서 빵이난다 결론을 냈고 실제로도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S대 인소농에서 상향을 했을 수도 있고, Y대에서도 자신보다 높은 점수의 지원자가 똑같이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편 24명이 아니라 2명이 더줄아서 하향을 해서 자신이 빵꾸중엔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인소농에서 더 올라와서 자신의 자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24명이 아니라 26명이라 빵꾸도 아닐 수 있어요. 이래서 스나가 쉽지 않습니다.

이 2)와 3)에 대해서 제 경험과 아는바에 비추어봐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부분도 당연히 포함시됩니다. 지금도 통용될 수도 있지만 100%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글이든, 비판적으로 읽길 바랍니다. 제 글을 포함해서 검증 불가능한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